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휴가철에 국내외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날씨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 7월 29일(월)부터 8월 17일(토)까지 공동체 직원 휴가기간입니다.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공동체생활 감사)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공동체생활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31 호

2024년 8월 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방 풋살 프로젝트

요즘 젊은이들과 풋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안에 건강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축구 선교회처럼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참여에 대한 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횟수로 마무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실제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서로 연락만 주고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총 10회를 목표로 4월 달부터 비정기적으로 시작한 풋살이, 벌써 어제로 9번째 운동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약 5개월의 긴 여정이 마무리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 막연하기도 했지만,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보니 그동안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 얼굴을 익히고, 기존의 친구들과는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반갑고도 뿌듯합니다. 참석 인원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로 멋쟁이 학교 선생님들과 멋쟁이 학교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 늘푸른 사랑방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고, 멋쟁이 졸업생들이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여서, 많이 참석할 때는 4팀으로 조직해서 서로 밀어내기 형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매번 새로운 조합으로 팀을 이루게 되어,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연령대로 운동하

는 그룹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다른 팀들이 조금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특히 졸업생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랑방 출신의 청년들끼리의 특유의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서로를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같이 운동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에서 서울로 잠깐 올라온 경우에도 연락이 되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랑방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멋쟁이들도 역시 매일 점심때마다 풋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사실 졸업하고 나서 재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운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졸업생들과의 만남이 재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모임이 한두 개 있으면 그 자체로도 큰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야말로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함께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는 시간은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대단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도해 보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부지런함과 수고를 더한다면, 충분히 좋은 교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풋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
거기에는 오고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내 평생 사는 동안, 은혜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기도 :

성경 : 예레미야서 3장

제목 :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1. 내용: 유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다. (What)

〈문단구분〉

1~7절 이스라엘의 잘못

8~13절 이스라엘보다 더한 유다

14~25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2. 의미: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이다. (Why)

1)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뜨린 죄이다.

2)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우상숭배에 빠졌다.

3)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3. 적용: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자. (How)

1)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켜나갑시다.

2) 많이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3)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알고 감사하자.

여름공동체생활

여름공동체생활 전날 저녁 9시 반, 장 본 집을 교회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려 보니 흰 불 켜져 있는 교육관에 찬양팀이 연습 중이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그들의 수고로움에 감사한 마음과 여름공동체생활이 시작됨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첫날 저녁 일을 마치고 혈레벌떡 오니 이미 다 정돈을 마친 식구들의 수고와 이 더운 날 불 앞에서 음식을 마련한 주방 팀의 새빨간 얼굴들 속에 서로 피어나는 웃음을 보며 나는 조금 울컥하면서도 감동적인 어른들의 섬김을 보았다.

늘어나는 방문재활치료와 샐러드카페 운영으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잠시 눈을 붙였다 새벽 12시에 씻고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은 채로 다시 출근하는 게 최근 일상이었다. 이런 나에게 교육공동체 회계로서, 강강술래 소리꾼으로서 책임이 생기니 퇴근하자마자 씻고 컴퓨터에 앉아 할 일을 하고 제시간에 자는 생활로 바뀌게 됐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내게 넘쳤다.

토요일에 있었던 특강 ‘우리가 이어갈 노래 자유, 사랑, 꿈’을 들으면서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을 몇 번이나 참았는지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1세대들의 지혜로 우리 2세대들이 양분을 많이 머금고 3세대들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사랑하고, 구체적인 꿈을 실천해야겠다. 얼마 전에 만난 청년 농부 친구는 자신의 농장이 2~3년 안에 어떻게 설계될 건지 나에게 얘기해주었는데, 농장의 팻말 이미지, 사과밭의 위치, 한옥스테이 리모델링 구상, 정자와 흔들의자의 목재 종류, 흑자갈을 깬 주차장 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꿈꾸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함께 격려하며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나에게 강하게 들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어른들의 섬김을 보며 교회와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더불어 사는 게 너무 행복한 하늘나라의 삶이었다. 힘듦보단 기쁨이, 피곤함보단 성령의 충만함이 내 몸을 진하게 감싸고 있다. 식구들 모두 너무너무 사랑한다. 힘든 여정을 잘 견뎌냈으니 이제는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 깊게 내렸으면 좋겠다. 젊은이사랑방 김이레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43 : 3-4

43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베소서 1 : 7

20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가복음 6 : 30-32 설교자

449

미리내사랑방

“ 쉼과 안식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19

438(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한호남 정승희 / 봉헌위원 : 이충환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쉼과 안식

예수님께 물려온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보내셨습니다. 여행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뻐고 흥분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쉼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와서, 쉼 쉬어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멈추어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쉼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간단한 원칙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일을 멈추고 그 현장을 떠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인식이 분명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안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공간을 물질로 채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최신헌 집사

신앙적인 중이병...?

안녕하세요 2024년 문서부 누룽지 글을 쓰게 된 2학년 화진심입니다. 이번의 누룽지글은, 저의 중이병, 머릿속의 생각과 고민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할까?” “강아지는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중이병 언니 오빠들이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게 신기하고 이해가 안 났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늘 “이런 생각 하든 말든 삶이 뭐 달라질 것 도 없고, 왜 이런 어렵고 쓸데 없는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이병 시절로 들어가니까 저도 이런저런 고민이 들더라구요. 이런 고민의 시작은 봄학기 특강수업 “세계관 특강”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계관 특강, 꽃들에게 희망을, 공부의 배신, 이런 이야기 책 뿐만이 아닌 철학적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생각이 깊어지며 삶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택 없이 세례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거나 계기를 통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겪는 신앙에 대한 의심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할까?” “내가 왜 하필 기독교를 믿었을까?”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세뇌 당해서 믿는 게 아닐까” 등등 이상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으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미안해 죄책감이 드는 복잡한 상황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와 페이스타임을 하루 두 시간 이상 하면서 삶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아주 깊게 생각을 해보니, 정말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정리해보고, 내가 기독교를 왜 믿느냐를 깊게 고민해봤습니다.

한 방학동안 고민해보니 거의 해결된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통해 점점 빠돌어진 나의 신앙과 가치관을 다시 수정하고 세우는, 저의 인생에 귀하고 중요한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상해 했던 이 “중이병 시절” 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설교가 항상 원 귀에 들어가고 오른 귀에서 흘러나오는 데요, 요즘 설교가 점점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하필 이런 시절에 “신앙에 중이병” “오늘, 당장, 무슨 신을 섬길지 결정하세요” 이런 설교주제가 많이 나오는 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무슨 신을 섬겨야 하는가? 무교인 하면 안될까 고민 하다가, 아빠와 대화하고, 인터넷, 책에서 “신앙” 이라는 것에 알아보니, “인간은 무언가의 믿음과 신앙이 꼭 있어야 하는 존재다, 절대적인 기준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없어도 스스로 찾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아득할 때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나만 느껴지는 응답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을 믿겠다 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기독교가 진짜라고 증명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들리는 증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느끼니, 마냥 나의 심리적인 자아 위로라도, 나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니, 거짓이라도, 나에게서는 참되다.

2학년 화진심 멧쟁이

- 1학기 학교 소식지 코이노니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엄마, 우리 오늘 뭐 먹어?

방학을 하고 공동생활 식구들이 휴가에 들어가니 공동식사도 쉬게 되면서 우리집은 카메라 없는 삼시세끼를 찍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인 첫째는 아침식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섬야하니 온 가족이 덩달아 샐러드식단을 가장한 빵 중심의 아침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먹으며 세 아이가 동시에 하는 말.

“엄마, 오늘 점심은 뭐야?”

아~~ 방학이 시작됐구나.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냉장고 안을 머리로 탐험합니다. 방학 때는 장보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냉.파(냉장고 파먹기-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우선으로 요리해서 먹기)를 하기로 맘을 먹은지라 일단 냉장, 냉동고를 먼저 뒤져봅니다. 그런데... 있는 재료는 얼어 있는 멀치랑 짬아지, 유통기한이 지난 무른 야채들뿐입니다. 간혹 얼린 생선이나 생닭이 보이기도 하네요.

밥시간은 다가오고 장보지 않고 버텨보자는 결심이 무너질 찰라 공동체 발이 퍼뜩 생각납니다. 땀별이지만 얼른 바구니를 챙겨 나가보니 호박이 주렁주렁. 오이가 가시오이, 백오이 두 종류나 되고, 고추는 고운 빛깔로 익어가고 깻잎도 손바닥만 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많이 와서 모양과 때깔은 조금 이상하지만 빨갭게 익은 토마토들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몇 개 따지도 않았는데 한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토마토로 토마토계란볶음을 하고 오이랑 고추는 쌈장에 야무지게 찍어 먹고, 호박은 전으로 먹으려 고이 냉장고에 모셔둡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어떤 산해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노고로 누리는 풍요이며 기쁨입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누군가는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날름 따먹기만 하는 것 같아 송구하지만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유기농 오이. 식감이 진짜 짱이다! 공동생활하길 잘~~했어!!” 고백하며 오이를 쌈장에 푹 찍어 먹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15장, 293장

성 경 : 시편 117편

말 씀 :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피살된 사건으로 인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예고하여 중동지역에 학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개혁자들>

전쟁과 갈등의 지역을 위해, 사람들의 평화와 자연과의 평화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개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여행 중에 있는 공동체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여름공동체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공동식구들은 가정별로 기간을 정해서 그간 살피지 못했던 친지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이도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비울 수 없기에 매일 당직을 정해 전화받기 및 손님맞이, 문단속등을 합니다.

여름공동체생활 이후에 젖은 우산도 말리고 공동체 곳곳을 정리하고 쓸고 닦기도 하면서 당직을 하는 식구들의 조용한 섬김에 감동합니다. 또한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무더운 폭염 속에서 가을 먹거리를 위해 밭을 정리하는 손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쉬는 기간 모두 잘 충전하여 하반기 공동생활도 활기차고 힘있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